

모성(母性)의 중요성

(결손가정의 아이들)

젊은 부부가 이혼 문제를 들고 찾아왔다. 남편은 아내의 정조(貞操)를 의심하고, 아내는 남편의 의처증과 학대를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주장이 너무나도 팽팽하여 어떤 중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기야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며 자신의 직장에 가족 몰래 휴직 계를 써내고 아내의 뒤를 밟는데 온 힘을 다하였다.

퇴근 후 다른 남자와 만나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아내의 모습이 '몰래카메라'에 잡혔다. 그는 한 손에는 그 사진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식칼을 들고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하였음을 시인하도록 협박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그는 또 다른 여자와의 부정한 관계에 얽혀 들어갔다. 그들은 결국 합의이혼 형식으로 이혼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후부터였다. “세 살배기 어린 아들을 누가 데려가느냐”의 쟁투가 벌어졌다.

남편은 ‘딴 남자와 놀아나는 부정한 여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하며 아이를 빼앗아 갔고, 아내는 정식으로 이혼하기도 전에 집에 들어와 살던 새 여자가 아이를 구박한다며 법원에 ‘아이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안 그랬는지는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집안이 콩가루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최고의 피해자는 “아내가 부정하다”며 분기탱천했던 아이의 아빠도 아니고, “억울해서 못 참겠다”던 아내도 아니었다. 부모를 잘 못 만나 얼떨결에 결손가정의 아이가 되어 버린 그 집 아들이 최고의 희생양이었다.

출생 후 6개월부터 만 4세까지의 아이들은 그가 애착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었을 때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 엄마에게서 자란 아이는 당연히 엄마에게 고착(固着)된 애정을 보이게 되므로, 그 어린아이는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오스트리아의 소아 정신과 의사 스피츠(Spitz)는 강제로 어머니로부터 격리된 아이들이 겪는 독특한 반응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처음에 어린아이는 극심한 불안과 흥분으로 울며 엄마가 떠나지 못 하게 하는 강한 저항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떠나는 경우 어린아이는 심각한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져든다.

그 후 격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린아이는 엄마의 귀환을 포기하는 듯 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된다. 이런 격리 상태가 일시적으로 끝나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어린아이의 감정 상태는 즉각 평온을 되찾게 된다.

그러나 만약 격리가 장기간 계속되며 엄마를 대신하여 보살필 만 한 사람이 마땅히 생기지 않을 경우 어린이는 식욕부진과 수면 장애를 겪게 되며 자주 놀래고 체중이 감소하는 등의 우울증에 빠지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이 멈추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Anaclitic depression).

이혼은 당사자들에게 매우 높은 정신 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이 자식에게 미치는 스트레스의 강도 또한 이에 못지않다.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며 사회 적응 훈련을 해 나가는 영, 유아기 시절에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자라거나 계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다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또 모든 ‘새엄마’가 괘씸 엄마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아기 시절 일단 한번 생긴 엄마와의 애착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가끔 결혼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를 진료해야 할 때가 있다. 아이의 할머니나 고모는 보통 “그 여자는 절대로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여자였다”라거나 “이혼하기 잘 한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 놀랍게도 아이들마저도 거의 전부 “절대로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

어린아이는 알고 있는 것이다. 집안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은 ‘죄(罪)’에 해당한다고. 그러나 모르고 있는 것은 몇 년이 흐른 뒤 알게 될 제 가슴의 커다란 공동(空洞)이다.